

일반 논문

## 이민자 국가 미국의 사회통합 문제와 종교성(religiosity)

: 용광로(melting pot) 모델과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의 비판을 통해\*

김지훈 (서울대)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이주(移住, migration)의 시대'에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뤄왔는지 살펴보고, 21세기에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이민정책 논쟁의 근간에는 종교성(religiosity) 논의가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형성과 이후 눈부신 성장의 주춧돌이 된 다원주의는 종교성에 기인했음을 주장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교의 사회통합적 역할에 대한 강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이민사와 함께 20세기 초반 급증했던 이민자 현상을 두고 이뤄진 이민배척주의(nativism)와 고전적 실용주의(pragmatism) 간 논쟁을 소개하고, 실용주의자인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이민자들로 이뤄진 미국 사회를 어떻게 표상할지를 두고 제시된 '멜팅팟(melting pot)', 즉 용광로라는 은유를 통해 드러나는 동화(同化, assimilation)주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칼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387>

\* 본 연구의 첫 구상은 2022년 6월 한국정치사상학회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동서양 사회통합의 정치사상”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고의 주제선정과 집필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한국정치사상학회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비판과 유익한 비평으로 초고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도와주신 세 심사자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렌이 제시했던 ‘오케스트라’ 비유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에는 충분히 담기지 못한 종교성 내용과 이민자들이 체험하는 신학적 경험에 관해 논한다. ‘용광로’와 ‘오케스트라’라는 비유는 통합된 공동체를 묘사하지만 실제로 이민자 사회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그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국의 정신으로서 종교성이 좀 더 심도있게 고려되어야하며, 그러한 경우 우리가 목도한 ‘트럼프 현상’은 단순히 정치적 차원이 아닌 종교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함을 연구의 함의로 내세운다.

주제어: 이주, 이민정책, 종교성, 이민배척주의, 고전적 실용주의, 호레이스 칼렌, 용광로, 오케스트라

## I. 서론: ‘이주(移住, migration)의 시대’ 속 종교성(religiosity)

사회학자 스티븐 캐슬레스(Stephen Castles)와 정치학자 마크 밀러(Mark Miller)는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주의 시대”로 정의한다.<sup>1)</sup> 이주자, 그리고 이민자들은 이민 수용국(receiving countries)에 종종 해당 국가에 부재했던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적 전통을 안겨다 주며, ‘어떻게 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기준이 공존하고 융합될 수 있는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타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본국에 머무르는 이들의 수보다 더 늘어나기 시작한 현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는 미룰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준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sup>1)</sup> 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Palgrave Macmillan, 2003), p. 338.

<sup>2)</sup> Peter Kivisto and Thomas Faist, *Beyond a Bord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해왔는지 최근 다시 관심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이민자 문제와 사회통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교와 종교성(religiosity)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논하기 시작한 흐름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미국 사회 내에서 종교성 논의가 상당히 비중있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sup>3)</sup>

일찍이 사회철학자 윌 헤르버그(Will Herberg)는 1955년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유대교』(*Protestant, Catholic, Jew*)를 출간하면서 1950년대 까지 미국에서 종교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살폈고, 이는 곧 미국 내 종교성 연구에서 선구자적 위치에 올랐다. 헤르버그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헤르버그는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이전에 자신을 규정하던 정체성이 거의 대부분 지워지거나 감춰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이민자들은 “그럼 나는 누구지”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이때 헤르버그는 미합중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에 이민자들이 모두 자신이 스스로 택한 종교를 따를 수 있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모국에서 행했던 종교활동을 그래도 이어가며, 미국 사회 내에 종교적 다원주의가 형성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미국 사회 내에서 이뤄진 다원주의는 종교적 다양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44년에 케네디(Kennedy)가 뉴헤이븐(New Haven)과 코네티컷(Connecticut) 지역에서 행한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헤르버그는 미국에서 나타난 이민자들의 동화(同化, assimilation)는 아무런 기준 없이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유대교라는 종교적 구분에 맞춰 이민자들이 동화해 나간다는 ‘삼중 용광

---

*of Contemporary Immigration* (California: Sage, 2009).

3) *The Pew Research Center report*, “The Age Gap in Religion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8).

로(triple melting pot)' 개념을 내세웠다.<sup>4)</sup>

헤르버그의 논의가 개진된 이후 많은 학자들은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에게 종교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줬다. 이민자 문제를 연구하는 키야티 조쉬(Khayati Joshi)는 “종교성은 문화를 양산하고 영속화하는 역할과 더불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형성에 중추(中樞)를 차지한다”고 말한다.<sup>5)</sup> 그리고 사회학자인 낸시 포너(Nancy Foner)와 리처드 알바(Richard Alba)는 종교가 이민자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하나의 가교(架橋, bridge)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미국 이민자들의 종교성이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sup>6)</sup> 이처럼 21세기에 들어 사회과학 연구자, 특히 사회학자들은 미국 내 이민자 수용에 있어 종교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해왔다.<sup>7)</sup> 이 중 대다수는 종교가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혹은 이민 사회 내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밝히는데 집중해왔다.<sup>8)</sup> 고용 기회나 임금을 더 많이 보장

4) Will Herberg, *Protestant-Catholic-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5) Khyati Y. Joshi, *New Roots in America's Sacred Ground: Religion, Race, and Ethnicity in Indian America*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6), p. 15.

6) Richard Alba and Nancy Foner, *Strangers No More: Immigration and the Challenges of Integration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Nancy Foner and Richard Alba, “Immigrant Religion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Bridge or Barrier to Incl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2, no. 2 (2008), pp. 360-392.

7) Wendy Cadge and Elaine Howard Ecklund, “Immigration and Relig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no. 1 (2007), pp. 359-379; Stephen R. Warner, “Religion and New (Post-1965) Immigrants: Some Principles Drawn from Field Research” *American Studies*, vol. 41, no. 2/3 (2000), pp. 267-286; Fenggang Yang and Helen Rose Ebaugh, “Transformations in New Immigrant Religions and Their Global Implic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2 (2001), pp. 269-288.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경제학적 차원<sup>9)</sup>이나 정치공동체 내에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가 이뤄져왔다.<sup>10)</sup> 하지만 여전히 얼마나 또 어떻게 종교가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촉구시켰는지는 논쟁적이다. 특히나 사회통합의 다양한 측면 중 어떠한 부분이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더 많은 고민을 요한다.<sup>11)</sup>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 문제의 특성상 분석보다는 기술사(記述史)적인 측면이 강했고,<sup>12)</sup> 이민자 인터뷰 등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연구 대상자가 특정 지역이나 나이에 한정되어 미국의 이민자 전체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13)</sup> 학업

- 
- 8) Helen Rose Fuchs Ebaugh and Janet Saltzman Chafetz, *Religion & the New Immigrants: Continuities and Adaptations in Immigrant Congregation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0); Charles Hirschma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3 (2004), pp. 1206-1233; Carolyn Chen, *Getting Saved in America: Taiwanese Immigration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Joshi, *New Roots*.
- 9) Mark S. Brown, "Religion and Economic Activity in the South-Asian Popul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3, no. 6 (2000), pp. 1035-1061; Joanne Lindley, "Race or Religion? The Impact of Religion on the Employment and Earnings of Britain's Ethnic Communit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8, no. 3 (2002), pp. 427-442; Phillip Connor, "Religion as Resource: Religion and Immigrant Economic Incorpor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0, no. 5 (2011), pp. 1350-1361.
- 10) Siobhan McAndrew and David Voas, "Immigrant Generation, Religiosity and Civic Engagement in Britai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7, no. 1 (2014), pp. 99-119; David Broughton and Hans-Martien ten Napel, eds., *Religion and Mass Electoral Behaviour in Europ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 11) Rodney Stark, "Religion and Conformity: Reaffirming a Sociology of Religion" *Sociological Analysis*, vol. 45, no. 4 (1984), pp. 273-282.
- 12) Cadge and Ecklund, "Immigration and Religion".
- 13) Nora E. Thompson and Andrea G. Gurney, "'He is Everything': Religion's Role in the Lives of Immigrant Youth"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vol. 100,

성취, 취업, 소득 등을 두고 행해진 정량적 연구에서도 여전히 획일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sup>14)</sup> 이렇게 어떠한 특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성, 정체성, 공동체로 변수화하는 대상이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인 한편, 하나의 특정한 요소로 규정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sup>15)</sup>

이러한 연구 흐름과 한계에 주목하여 본고는 미국의 이민 역사와 논쟁을 소개하며, 종교성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20세기 초반 이민자 현상을 두고 펼쳐졌던 찬반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 건국 초기 이후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1910년대와 1920년대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고,<sup>16)</sup> 이때 미국 내에서는 1870년 이후 급증한 이민자 수와 더불어 이렇게 다양한 인종을 어떻게 한 사회 내에 뿌리내리게 할지,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염려가 일어났다. 이들이 미국의 정치문화에 어떠한

---

no. 4 (2003), pp. 75-90; Amy Eva Warren, Richard M. Lerner, and Erin Phelps, eds., *Thriving and Spirituality Among Youth: Research Perspectives and Future Possibilit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11).

14) 각 영역과 관련해서 최근 몇몇 연구를 거론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Nabil Khattab, "Ethno-Religious Background as a Determinan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Britain" *Sociology*, vol. 43, no. 2 (2009), pp. 304-322; Matthias Koenig, Mieke Maliepaard, and Ayse Güveli, "Religion and New Immigrants' Labor Market Entry in Western Europe" *Ethnicities*, vol. 16, no. 2 (2016), pp. 213-235; Connor, "Religion as Resource".

15) 전자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Phillip Connor and Matthias Koenig, "Bridges and Barriers: Religion and Immigrant Occupational Attainment Across Integration Contex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7, no. 1 (2013), pp. 3-38, 후자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Ken Clark and Stephen Drinkwater, "Immigrant Self-Employment Adjustment: Ethnic Groups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vol. 30, no. 1/2 (2009), pp. 163-175 참고해볼 수 있다.

16) Eric P. Kaufmann, *The Rise and Fall of Anglo-Americ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나 당시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백인 앵글로-색슨(Anglo-Saxon) 프로테스탄트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을 살펴본 다음 3장에서는 헤르베그의 논의에서 등장한 ‘용광로(melting pot)’라는 비유가 어떻게 사용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sup>17)</sup> 이민자를 둘러싼 논쟁이 이뤄지던 20세기 초반 처음으로 이민자들로 이뤄진 미국 사회를 어떻게 표상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때부터 여러 은유를 통해 미국 사회를 그리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3장에서는 ‘용광로’라는 비유가 어떠한 지적·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시되었고, 이러한 비유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초반 실용주의자인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의 논의를 살펴보면 ‘용광로’라는 은유를 통해 드러나는 동화주의(assimilation)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칼렌이 제시했던 ‘오케스트라’ 비유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sup>18)</sup>

17) ‘melting pot’의 번역어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원어 그대로 ‘멜팅 팟’ [김중혁 외 공저,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 수용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5집 4호 (2019), 177~202쪽, nativism의 번역어로 차용한 ‘이민배척주의’에 대응하는 ‘융합주의’ [김효정·조규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제7집 1·2호 (2018), 59~103쪽,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광로’ [김대중, 「『팔월의 빛』과 『약속의 땅 모나』를 통해 살펴본 인종과 패싱 담론 연구」 『동서비교문화저널』 제45호 (2018), 35~59쪽; 김정옥, 「잭 존슨(Jack Johnson)과 가변적인 백인의 경계, 1905-1913」 『미국사연구』 제48집 (2018), 207~247쪽]로 번역되고 있다. 본고에서 이를 ‘용광로’로 번역하는 이유는 해당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은유로서의 의미를 보존하는 한편 내용의 온전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외래어의 직접적인 표기는 삼가하기 위함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18)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주의 및 민족적 정체성 문제를 두고 20세기 초 실용주의를 다루는 몇몇 최근 연구가 있지만, 이민이라는 관점을 두고 명시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드물다. 관련된 최근 연구는 다음을 같다. Maurice Hamington, *The Social Philosophy of Jane Addam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Chad Kautzer and Eduardo Mendieta, *Pragmatism, Nation, and Race:*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러한 비유에는 담기지 못한 종교성(religiosity) 내용과 이민자들이 체험하는 신학적(theologizing) 경험에 대해 논할 것이다. 미국의 이민사회를 그려온 기존의 은유는 통합된 공동체를 묘사하는데 그쳐 실제로 이민자 사회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4장에서는 이민자들이 이주를 결심하는 과정이 하나의 신학적 반추 과정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현재 이민정책을 두고 양분된 논쟁이 기본적으로는 이민 수용국 내 주류가 내재화한 일종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에 기반을 둔 논의임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미국 사회는 어떠한 고민이 더 필요할지 제시할 것이다.

## Ⅱ. 미국 이민 정책의 변주(變奏) : 이민배척주의와 용광로라는 은유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내세우며 이민자들이 모여 수립했고 다양한 성향과 자질을 향유한 이민자들이 보여주는 활기로 인해

---

*Community in the Age of Empi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Bill Lawson and Donald F. Koch, *Pragmatism and the Problem of Ra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Terrance MacMullan, *Habits of Whiteness: A Pragmatist Reconstruc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Erin McKenna and Scott Pratt, *American Philosophy: From Wounded Knee to the Present* (New York: Bloomsbury, 2015); Scott Pratt, *Native Pragmatism: Rethinking the Roots of American Philosoph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Shannon Sullivan, *Revealing Whiteness: The Unconscious Habits of Racial Privile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성장해 온 미국’이라는 서사(敍事, narrative)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선전되어 온 이념에 가깝다. 건국 초기 미국에 정착했던 앵글로-색슨족은 이민 현상을 두고 상반되는 정서(sentiment)를 내비쳐왔다. 그 정서가 어느 방향으로 좀 더 향하는지에 따라, 또 이에 맞춰 특정한 정치적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민 정책은 국경을 좀 더 개방하는 흐름과 폐쇄하는 흐름 사이에서 변주(變奏)를 계속해왔다.<sup>19)</sup>

이렇게 혼잡한 이민사를 두고 미국의 이민 문제를 연구하는 법학자인 빌 hing(Bill Ong Hing)은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국 시기를 되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hing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두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내세우며, 이민자 문제를 두고 미국 건국 초기부터 형성된 두 갈래의 담론을 소개한다. 프랭클린이 외국인의 유입, 특히 독일인의 이주에 대해 경멸적인 시선을 보였던 반면, 워싱턴은 이민자 보호(sanctuary) 국가, 즉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게 될 ‘미국’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이처럼 ‘아버지’의 나뉘어진 유산은 “미국인의 정신(psyche)을 변함없이 구성해온 부분인 이민과 이민자 논의를 보여주는 전형”이다.<sup>20)</sup> 이처럼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분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양분된 관점은 1870년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앵글로-색슨족은 이러한

<sup>19)</sup> 이민 정책, 특히나 멕시코인의 이민을 두고 미국 이민사는 완전한 개방과 강건한 거부 사이를 계속해서 변주해왔다. Francisco E. Balderrama and Raymond Rodriguez, *Decade of Betrayal: Mexican Repatriation in the 1930s* (Albuquerque, NM: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2006). 미국 내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둘러싼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해볼 수 있다. Erika Lee, *America for Americans: A History of Xenophobia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19).

<sup>20)</sup> Bill Ong Hing, *Defining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4), p. 8.

현상을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제한으로 이어졌다. 1882년 중국인 배제법(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1924년 제정된 이민법인 존슨-리드법(the Johnson-Reed Act)은 미국에 건너오는 이민자 숫자를 제한시켰다. 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완전히 거부하는 한편 여타 국가들로부터 오는 이민자 비율을 할당하고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문해 사항(literacy requirement)을 이민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제한이 풀리게 된 때는 40여 년이나 지난 뒤인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후였다. 정책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 내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달라졌다. 1924년 이전까지 전체 미국인의 13퍼센트에 달하던 이민자 수는 1965년 5퍼센트로 급감했다가, 1965년 법 개정 이후 현재는 다시 약 14퍼센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sup>21)</sup> 1920년대와 유사한 미국 내 이민자 구성을 마주하게 되자, 다시금 이민 제한 논의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초기 이민자 유입 시기의 논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안겨다줄 수 있음을 뜻한다.

1900년부터 1910년 사이 이민자 수는 직전 세기 마지막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해, 거의 880만에 달했었다.<sup>22)</sup> 단순히 그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 이전까지 이주민은 거의 북유럽과 서유럽 출신이었던 반면, 이때부터는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새롭게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이전과는 결이 다른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그리

<sup>21)</sup> Daniel Tichenor, "The Historical Presidency: Lyndon Johnson's Ambivalent Reform: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6, no. 3 (2016), pp. 691-705.

<sup>22)</sup> Norman R. Yetman, *Majority and Minority* (Boston: Allyn and Bacon, 1999), p. 569.

고 외향이 미국 사회로 유입되었다.<sup>23)</sup> 저명한 미국의 역사학자인 필립 글리슨(Philip Gleason)은 이 시기를 미국의 정체성 논의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때로 꼽는다. 과거 종교적 차원에서 ‘프로테스탄트’인지 아닌지가 미국인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민족과 문화가 정체성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4)</sup> 주변을 돌아볼 때 눈에 들어오는 현저히 변화된 낯선 모습은 상당수의 미국인들에게 두려움, 불안정, 반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고, 이렇게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혹은 대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펼쳐졌다. 그 중 1907년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시작돼 3년간의 연구에 걸쳐 나온 1910년 연구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여겨져 순식간에 사회 전반적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유입된 이민자들은 기존 ‘미국인’과는 인종적으로 다르며 유전학적으로 열등하다고 결론지었고, 미국 정부는 “이민을 제한할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5)</sup> 그리고 이는 이민배척주의(nativism)<sup>26)</sup>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문화적

23) John Higham, *Send These to Me: Immigrants in Urban America* (Rev.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1975)), p. 43; Reid Luhman, *Race and Ethnicity in the United States: Our Differences and Our Roots* (Houst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2), p. 178.

24) Philip Gleason, *Speaking of Diversity: Language and Ethnicity in Twentieth-Century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p. 38.

25) Luchman, p. 185.

26) 본고에서 이민배척주의라고 번역한 ‘nativism’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학계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듯하다. 최근 5년간 관련해서 나온 학술 논문을 살펴보면, ‘이민배척주의’ (박지영, 「대중의 위협인식이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정책 지지에 미친 영향: 문화적·안보적·경제적 위협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5호 (2018), 217~242쪽), ‘본토인주의’ (김덕호, 「랜돌프 본과 세대갈등」 『미국사연구』 제54집 (2021), 105~139쪽), ‘토착주의’ (김호연, 「미국에서의 우생학 실험: 오네이다 공동체, 1848-1880」 『미국사연구』 제49집 (2019), 139~172쪽), ‘배외주의’ (김호연, 「미국에서의 생명정치(Bio-Politique), 1890년대-1930년대」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제46집 (2018), 123~153쪽) 등이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민배척주의자들은 통제되지 않는 이민은 미국 사회에 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믿었다.

1910년대에 이민배척주의를 견지했던 보수적인 인물의 전형으로 변호사이자 우생학자였던 매디슨 그랜트(Madison Grant)를 들 수 있다.<sup>27)</sup> 미국 우생학회(American Eugenic Society)를 공동 설립한 그랜트는 이민반대 연합(Immigration Restriction League)의 회장을 역임했고,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뉴욕에서 동물학회(New York Zoological Society)를 설립하고 이끌었다.<sup>28)</sup> 1916년에 낸 『위대한 인종의 소멸』(*The Passing of the Great Race*)이란 글에서 그랜트는 멘델의 유전학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북유럽 인종 외 다른 이민자들, 특히 유대인을 ‘분식’했다. 여기에서 그랜트는 인종이란 특질은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주변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과학적 관찰 결과를 들었다. 그리고

---

번역어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본래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적 대응 차원에서 활용되었던 ‘nativism’이라는 용어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대하는 현상과 대상이 달랐기에, 그 대상에 반(反)하는 ‘주의(ism)’가 내포하는 뜻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기원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구성하는 이러한 용어의 번역어 통일이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성격상 이러한 논의를 다 담아낼 수는 없기에 해당 논의는 추후 다른 작업을 통해 개진하고자 하며, ‘이민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 글의 취지상 이후로 해당 번역어로는 ‘이민배척주의’를 사용하고자 함을 밝히는 바이다.

<sup>27)</sup> 당시 스웨덴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그랜트를 “미국 인종차별주의의 대사제”라 칭하였고, 최근 미국의 역사학자인 존 히그햄(John Higham)은 그를 “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대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배척주의 사상가”였다고 평가한다. Gunnar Myrdal, *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 Volume I*,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2 [1944]), p. 114; John Higham,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60-192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8[1955]), pp. 155-157.

<sup>28)</sup> Ibid., pp. 155-157.

이렇게 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는 머리카락, 피부색, 얼굴형 등 신체적 특징은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성격과 능력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랜트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유럽인은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류인 앵글로-색슨족은 가장 상위 유형인 북유럽인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인종 간 위계가 존재하기에 인종 간 결혼은 미국인, 즉 앵글로-색슨족이 지녀온 뛰어난 자질을 잃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인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날 열등해진 개인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로 인해 사회는 타락하게 된다. “두 인종 간 결합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로 돌아가도록, 이전의 더 못한 유형의 인종으로 회귀하도록 한다.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서는 인디언이 태어나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는 흑인이 태어나며, 백인과 힌두교인 사이에서는 힌두교인이 태어나며, 어떤 유형이든 유럽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유대인이 태어난다.”<sup>29)</sup> 따라서 그랜트의 주장에 따르면 인종 간 혼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지되어야 하는 사항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이민은 배제되어야 한다. 결국 그의 주장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제는 인종적 위계로 인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당시에 이처럼 이민배척주의만 개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롭게 건너온 사람들이 미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오히려 미국을 강건하게 해줄거라 주장했다. 문화적 시온주의(Cultural Zionism)를 내세웠던 유대계 영국 작가 이스라엘 쟁일(Israel Zangill)은 1908년 멜팅 팻, 즉 용광로라는 극을 썼고 이는 곧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극은 이민자 자녀인 데이비드(David)와 베라(Vera)라는

<sup>29)</sup> Ibid., pp. 154-157; Madison Grant, *The Passing of the Great Race, or the Racial Basis of Europe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8 (1916)), pp. 90, 18.

두 젊은이의 사랑이야기를 다룬다. 유대계 러시아인인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러시아 관리자였던 베라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이민을 오기 전 구세계(the Old World)에서 관리자였던 베라의 아버지는 데이비드의 대가족을 처형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구세계에서 형성된 적대감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이 멀어지도록 방치하는 대신 데이비드와 베라는 굳건한 애정과 함께 신세계인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 즉 영광스럽고 깨끗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는 약속에 감응하여 혼인을 하기로 결심한다. “나의 조국은 당신의 것”이라는 말에 이어 막이 내릴 때 데이비드는 “아 베라, 모든 민족과 인종이 뒤돌아 찾게 되는 로마와 예루살렘의 영광은 모든 민족과 인종이 노동이라는 활동을 염두에 두고 희망을 찾고자 건너오는 미국이 보여주는 영광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건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한다.<sup>30)</sup> 이처럼 쟁월이 그리는 영광로인 미국은 그랜트가 정의한 바와는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 다양한 인종, 민족 및 세계관을 융합하여 역사와 민족적 유대를 초월하는 희망과 가능성이 내재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러나 보수 정치 평론가인 패트릭 뷰캐넌(Patrick Buchanan)은 이러한 긍정적 해석에 반론을 제기했다. 뷰캐넌은 이민자들이 특정한 정치적 가치나 헌법적 명제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한, 미국에 와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영광로의 은유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뷰캐넌은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논의에 따라, 미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인종 집단이든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앵글로-색슨 개척자와

<sup>30)</sup> Everett Helmut Akam, *Transnational America: Cultural Pluralist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2).

그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 본질적으로 정의된 정치 문화와 제도를 지닌 “정착자 국가(settler nation)”라는 것이다.<sup>31)</sup> 뷰캐넌과 헌팅턴은 국경 개방을 촉구하는 이민 정책은 미국의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거부할 이민자들이 상당수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미국이 기존 정착민과 매우 다른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다면, 미국이 이전처럼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하거나 변형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뷰캐넌은 다민족 및 다문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더욱 큰 경각심을 표출한다. “미국이 인종적·문화적 핵심을 잃고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sup>32)</sup>

31) 국제사회에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테제를 제시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헌팅턴 역시 용광로라는 은유는 미국 내에서의 이민 현상을 왜곡하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에서 헌팅턴은 미국계 미국인 국적은 건국 정착민들이 가져온 앵글로-프로테스탄트의 가치와 전통이라는 특정한 토대 위에 마련되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이민자 집단이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적’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하며, 근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Samuel Huntington,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5).

32) Patrick J. Buchanan, *State of Emergency: The Third World Invasion and Conquest of America* (New York: Thomas Dunne, 2006), p. 150.

### Ⅲ.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의 오케스트라 은유: 사회 전체의 조화와 개별자의 해방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민배척자들에 의해 제기된 염려나 경고와는 달리 일부 고전적 실용주의자들은 이민자와 기타 소수 민족 또는 인종 집단이 미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요소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조시아 로이스(Josiah Royce, 1855~1916),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제인 아담스(Jane Addams, 1860~1935), 듀보이스(W. E. B. Du Bois, 1868~1963), 호레이스 칼렌(Horace Kallen, 1882~1974), 랜돌프 본(Randolph Bourne, 1886~1918), 루이스 아다믹(Louis Adamic, 1898~1951) 등이 목소리를 모았다. 이 일군의 학자들은 이민자와 기타 문화적 소수자들이 국가의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문화 원주민주의적 견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민자와 소수 민족이 자신의 문화나 종교를 버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제기된 논의 중 우리는 칼렌의 논의에 집중해 살펴볼 것이다. 칼렌은 1915년 「민주주의 대 용광로」(“Democracy Versus the Melting-Pot”)라는 소론을 내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 글에서 칼렌은 미국은 여러 민족들이 연방(a federation of nationalities)을 이루는 나라라고 정의하면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주요 의무는 모든 민족 집단들 간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각 집단이 지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소론에서 칼렌은 미국의 역사를 되짚어 가며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내용을 검토한다. 미국 사회 내에서 신성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독립선언문이 그동안 잘못 해석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당시 선언문이 작성된 맥락을 고려해 그 본래의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다. 그가 보기에 독립선언문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치철학적 논리에 기반을 둔 글이 아닌, 미국이 독립을 추구했을 당시 영국 정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비판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문서였다. 이어서 칼렌은 20세기 초반의 ‘미국인’은 독립선언문이 작성되었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역전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지배계층에 저항하던 처지와는 달리 이제는 자신이 지배집단으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이민자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1776년 당시 관계는 [이제] 결과적으로 역전되었다. 1776년에는 식민지 주민들이 지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선언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20세기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사람은 불평등하다는 선언이 필수적이게 되었다.”<sup>33)</sup>

실제로 칼렌을 비롯한 다른 많은 유대계 지식인들은 미국화(americanization)는 곧 앵글로-색슨화임을 받아들여도록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적·사회적으로 위협을 느꼈다.<sup>34)</sup> 이러한 조류에 반대하며 칼렌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은 특정 인종이나 특정 민족적 문화의 특정 속성에 있지 않고, “아일랜드인, 독일인, 스칸디나비아인, 유태인, 폴란드인 또는 보헤미안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종족 정체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칼렌에게 미국화는 다수가 보이는 이질적인 민족 정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었다.<sup>35)</sup>

칼렌은 당시 미국 사회가 윤리와 정치를 구분해 양자택일을 촉구하는

<sup>33)</sup> Horace M.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8(1924)), p. 61.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

<sup>34)</sup> Daniel Greene, *The Jewish Origins of Cultural Pluralism: The Menorah Association and American Diversit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ch. 3.

<sup>35)</sup> Horace M. Kallen, “Democracy versus the Melting-Pot: Part II” *The Nation*, vol. 100, no. 2591 (1915), p. 219.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획일적인 문화를 시민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정치적인 국가로 존재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아우르며 조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국가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칼렌은 전자의 입장을 비판한다. 문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은 통일된 문화가 실제로 형성되어 이뤄진다는 확실한 보장 없이, 도리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에 과도하게 침범하여 자유와 자율을 제한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칠 위험에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적 동질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완전한 국유화, 모든 형태의 교구 및 사립 학교의 폐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교육 폐지, 영국 전통에 따른 역사 및 문학 교육 집중”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 시행은 1차 세계 대전이라는 유혈 전쟁을 불러온 유럽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방식과 동일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기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각자 삶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제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칼렌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은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은유를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36)</sup>

“오케스트라에서 보여지듯 모든 유형의 악기는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오케스트라는 그 본질과 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유형의 악기가 교향곡 전체에서 적절한 주제와 선율을 가지고 있듯이, 사회에서 각 민족 그룹은 자연적인 악기이고 그 정신과 문화는 주제와 선율이며 이들이 형성

<sup>36)</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 111.

하는 조화와 불협화음 및 불화 모두가 문명의 교향곡을 만든다. 물론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음악 교향곡은 연주되기 전에 작성된다. 반면 문명의 교향곡에서 연주는 글쓰기이므로 음악에서처럼 음악의 진행에 대해 그렇게 고정되고 불가피한 것은 없으므로 자연이 정한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음의 범위와 다양성은 더 넓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sup>37)</sup>

칼렌은 오케스트라의 은유를 통해 다음 두 주장을 제기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자의 해방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자들로 구성된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방향성이 다른 두 주장을 칼렌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었는지 이후 논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칼렌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개별자를 보호하는 한편 능력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8)</sup> 여기에서 지켜져야 하는 능력 중 하나는 독립 선언문에 담긴 바와 같이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칼렌은 가족과 문화적 정체성이 이러한 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개인의 “정신물리학적 유산”을 구성한다고 믿는다.<sup>39)</sup> 이 유산은 사회라는 세계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영역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가족, 친구, 이웃이 어떠한 기쁨, 희망, 슬픔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가 결정된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출생은 유전과 구별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특정한 문화적 요구 사항을 동시에 수반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형질은 사실 유아

<sup>37)</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p. 116-117.

<sup>38)</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 115.

<sup>39)</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 114.

가 사회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상속이다... 이러한 상속은 프로이트와 그를 위시로 하는 학파가 관심을 보였던 순전히 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식으로 유아의 마음을 결정하고 이후 나타나는 일상적 반응의 방향을 예단한다.”<sup>40)</sup>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과 요셉 라즈(Joseph Raz)는 칼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개별 인간이 세우는 삶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전통과, 어떠한 행동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무엇이 가치있고 없는지에 대해 암묵적으로 형성된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어떤 문화와 연관된 친숙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결정한다. 문화 내에서 어떤 내용이 공유된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속한 인간이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일이다.”<sup>41)</sup> 따라서 이민자에게 백지가 물감을 흡수하듯 어떤 고정된 새로운 문화를 더 나은 삶의 방식이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정치, 종교, 철학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자신의 할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다... 자아실현을 위해 ‘양도할 수 없는’ 자유가 필요한 자아는 [일부] 이미 조상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조상의 유산에 내포되어 있다.”<sup>42)</sup>

<sup>40)</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 177.

<sup>41)</sup> Avishai Margalit and Joseph Raz,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Will Kymlicka, ed.,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86.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

<sup>42)</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p. 114-115.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 이러한 칼렌의 주장은 문화적 획일성 추구가 이민자의 존엄성에 일종의 도덕적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인정의 정치학”을 예고한다. Charles Tayl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25-73.

한편 칼렌이 강조하는 이민자로서의 가치 논의는 단순히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민자는 고립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사회통합 문제를 다소 소홀히 했던 일부 다문화주의 논의와는 다르다.<sup>43)</sup> 이러한 다문화주의 논의와 거리를 두는 칼렌이 염두에 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에서 연방 공화국이었다. “영연방의 정치·경제적 생활은 하나의 단위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각 민족의 독특한 개성을 실현하고 이들을 무엇보다도 조화롭게 통합하는 토대이자 배경이 된다.” 이처럼 “공화국의 제도”는 유럽 소수 민족의 “문화적 의식과 사회적 자율성의 상승”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sup>44)</sup> 이러한 공화국의 제도가 미국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칼렌이 이해하기로 미국에는 “산업적이고 신학적 요소 외에는 어떠한 지배적인 정신이 없다.”<sup>45)</sup> 이제 우리는 이 지배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 IV. 이민자들의 신학적 경험 :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상상

칼렌의 논의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종교가 미국 건국 정신의 핵심을 구성했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부터 새로운 세계(the New World)로 건너온 초기 유럽 이주민들에게 종교활동의

<sup>43)</sup> Ali Rattansi, *Multicultur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9-20.

<sup>44)</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 116.

<sup>45)</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p. 96.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러한 중요성이 비단 초기 개척자들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기적인 종교 활동과 회중 참여는 미국 내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19세기 프랑스 정치사상가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유럽 내에서 형성된 기독교적 전통이 미국 내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신(God)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전통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sup>46)</sup>

이처럼 기존에 억압적이고 고정적인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종교는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활동은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줬다.<sup>47)</sup> 이에 퍼트넘(Putnam)은 종교 공동체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저장고라고 주장한다.<sup>48)</sup> 레빗(Levitt) 또한 종교 단체 활동이 직접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사람들 간 직접적인 교류와 대화를 나누며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보았다.<sup>49)</sup> 종교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46) 토크빌에 따르면, “성직자는 누가 어느 지위에 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ume 1*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1835), pp. 6-7.

47) Robert D. Putnam and David E. Campbell,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Us and Unites U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0).

48)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Lane Crothers and Charles Lockhart, eds., *Culture and Politics: A Read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223-234.

49) Peggy Levitt, “Religion as a path to civic engagement” *Ethics and Racial Studies*, vol. 31, no. 4 (2008), p. 778.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보드나르(Bodnar)는 19세기 이후 미국 이민사에서 이민교회만큼 분열과 불화의 원천이 된 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John Bodnar, *The Transplanted: A History of Immigrants in Urban Ame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p. 166.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그런데 이주와 이민이라는 경험은 이렇게 단순히 이민 수용국이라는 공동체적 차원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미국 사회를 그리는 ‘용광로’라는 비유가 이민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만을 강조하기에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가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1)</sup> 실제로 용광로라는 비유가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실용주의자를 위시한 몇몇 미국 철학자들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염려는 2장에서 살펴본 이민배척주의자나 최근 헌팅턴의 경고와는 결이 달랐다. 본래 용광로는 그 안에 담긴 재료를 열에 노출시켜, 금속의 경우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즉 기존에 있던 재료를 거의 강제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다. 즉 용광로 속에 담긴 재료의 속성은 유지되지 못한 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20세기 실용주의자들은 이처럼 용광로라는 은유에 내재된 (당연한) 폭력성에 주목했다. 용광로라는 은유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문화적으로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를 해치는 표현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따라서 이들은 이민자와 소수 민족이 자신의 문화나 종교를 버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용광로라는 은유에 내포된 사회통합적인 의미

50) Renate Ysseldyk, Kimberly Matheson, and Hymie Anisman, “Religiosity as Ident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ligion from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4, no. 1 (2010), pp. 60-71.

51) 이러한 비판적 의식에 따라 최근 들어 샐러드 볼(salad bowl) 혹은 피자(pizza)라는 새로운 비유를 통해 미국 이민자 사회가 그려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표적으로 미국 사회를 그리는 용어는 멜팅 팻(melting pot), 즉 용광로이기에 우리는 그 비유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를 저버리겠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해당 용어에서 드러나지 않은 혹은 용례를 통해 묻히게 될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문화적으로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미국 시민이라면 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맞추기 위해 종교적 배경이나 문화적 색채를 지우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자 사회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내재화한 것일까?

칼렌이 제기했던 것처럼 역사학자 티모시 스미스(Timothy Smith)는 미국으로의 이주 경험이 하나의 신학적(theologizing)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 이민자들이 겪은 경험을 “아브라함(Abraham)이 선조의 땅을 떠났던 것, 모세(Moses)를 따라 출애굽(the Exodus)에 함께 한 이들이 광야에 나섰던 것”과 비교했다.<sup>52)</sup> 이러한 비교를 통해 스미스는 이민자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즉 자신이 오래 시간 살던 곳에서 떠나며 향후에 겪게 될 일들을 예상하면서도 이민을 결단하는 과정을 신학적 반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고국에서 영위하던 종교적 삶과 친숙했던 종교적 상징으로부터 벗어나서 “개별자(individual)로서 느끼는 존재에 관한 물음과 함께 사회적 무질서 속에서 경험할 극도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극복하게 해줄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sup>53)</sup>

스미스의 주장 이후 사회학자들은 이 신학적 경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혀내고자 노력해왔다. 살펴본 것처럼 대다수는 신학적 경험을 회중(會衆) 등 종교적 참여 활동의 증가로 보았다. 이민자들이 이주 이후에 좀 더 독실해진다는 것이다.<sup>54)</sup> 하지만 신학적 경험은 단순히 이러한 참

<sup>52)</sup> Timothy L. Smith, “Religion and Ethnicity in Americ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83, no. 5 (1978), p. 1155.

<sup>53)</sup> *Ibid.*, p. 1175.



여 증대와 같이 외부로 나타난 행위 결과를 지칭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주와 이민을 행하면서 느끼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의 의미를 성서나 종교적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반추하는 하나의 과정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적 활동 공간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서로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로서 이들이 낯선 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이나 사회 내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완충(buffer)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와 사원은 종종 친숙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동료와 친교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개척해 나아갈 때 마주하는 어려움, 좌절,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안과 안식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4)</sup> 하지만 이렇게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안식은 이민자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종교적 차원에서 재구성해낸 다음에나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민 수용국 측에서 이러한 개개인의 내적 혼란과 고민을 염두에 둔다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민자와 미국 주류를 형성해온 앵글로-색슨과의 차이를 논할 때 종교보다 더 많은 학적 토론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진 영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사회학자인 낸시 포너(Nancy Foner)와 리처드 알바(Richard Alba)는 종교가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하나의 가교(架橋, bridge)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sup>56)</sup> 미국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입장을 달리해왔으며,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 Trump) 전 대통령과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종교 집단을 기준으로

<sup>54)</sup> Raymond Brady Williams, *Religions of Immigrants from India and Pakistan: New Threads in the American Tapes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29.

<sup>55)</sup> Foner and Alba, “Immigrant Religion”, p. 362.

<sup>56)</sup> Ibid.; Alba and Foner, *Strangers No More*.

이민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정치인들과 사회 참여 지식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근본 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종교적 배경을 지녔든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현재 이뤄지는 논쟁에서처럼 특정 종교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종교성을 바라본다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박애를 비롯한 도덕적 원칙을 공통적으로 전하는 일종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sup>57)</sup> 이는 미국 사회의 핵심을 이루은 종교성을 염두에 둔다면, 시민 개개인이 외부인과 이민정책에 보일 수 있는 태도나 신념이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책 선호 혹은 경제적 문제 등 개인의 현실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좀 더 내밀한 차원에서 이러한 태도와 신념은 종교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sup>58)</sup> 이러한 전환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근대 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교적 신념과 그 심오한 역사적 전통의 강력한 인지적, 동기유발적 ‘잠재력(potentials)’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sup>59)</sup> 이러한 종교성 논의를 통해 우리는 미국 내에서 변주해온 이민정책이 단순히 정치적·법적 차원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sup>60)</sup> 이민

57) Shalom H. Schwartz and Sipke Huisman, “Value Priorities and Religiosity in Four Western Relig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8, no. 2 (1995), pp. 88-107.

58) Richard H. Feen, “Church Sanctuary: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Practice” *Defense of the Alien*, Vol. 7 (1984), pp. 132-139.

59)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하버마스는 ‘후기세속사회’라 칭한다. 2004년 라칭거 주교(Joseph Aloisius Ratzinger, the Cardinal)와의 담화 이후 하버마스는 해당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Jürgen Habermas, “Secularism’s Crisis of Faith: Notes on Post-Secular Socie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vol. 25 (2008), pp. 16-29.

60) 종종 이민문제와 관련된 주장을 펼칠 때 정치인들은 ‘비합법적’이나 ‘미등록’이라는 이미 일상 내에서 존재하는 도덕률이 새겨진 용어를 사용한다. Jennifer

정책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신념 체계는 도덕률을 비롯한 윤리적 행동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민정책이 더 옳고 미국 사회에 적용되기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미국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종교성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이주라는 행위는 가족, 역사, 전통 등 기존에 친숙했던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에, 이주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종교 공동체 및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상상’하도록 한다.<sup>61)</sup> 이주라는 경험을 통해 기존에 자신이 영위해오던 관계망이 재편되는 한편, 이민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와 그러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62)</sup> 사회학자 스티븐 워너(Stephen Warner)는 이주를 통해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된다고 주장한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지?”<sup>63)</sup> 본고에서는 종교적 언어를 통해 자

---

Merolla, S. Karthick Ramakrishnan, and Chris Haynes, “‘Illegal,’ ‘Undocumented,’ or ‘Unauthorized’: Equivalency Frames, Issue Frames, and Public Opinion on Immigration”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1, no. 3 (2013), pp. 789-807. 미국 정치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도덕률과 관련 양분된 미국의 역사적 경로를 보여준다. Raymond Tatalovich and Byron W. Daynes, *Moral Controversies in American Politics*, 4th edition (New York: M.E. Sharpe, 2011).

<sup>61)</sup> Paul Bramadat, “Religion, Race, and Remembering: Indo-Caribbean Christians in Canad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79, no. 2 (2011), pp. 315-345.

<sup>62)</sup> Chen, *Getting Saved in America*.

<sup>63)</sup> Warner, “Religion and New”.

신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적 경험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신학적 경험을 통해 이민자들은 종교적 개념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새로운 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다시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사회와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자 ‘정신’으로 종교성이 더욱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했다. 20세기 초반 칼렌은 반 흑인, 반 카톨릭, 반 유대주의를 강령으로 삼았던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이하 KKK단)이 대두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KKK단은 종교단체에서 이뤄지던 의례와 의식을 활용하며 자신들만이 신은 물론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칼렌은 다원주의를 주장했다. “다원성, 다양성, 구별 속에는 모두 어떤 일체감으로부터 오는 활력이 존재한다. 문화적 발전은 문화적 다원주의로부터 온다.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제도는 집단과 사람은 물론 어떤 기질에 있어도 개별성을 신장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별성이 자유롭게 추구되도록 하며 자유와 협력에 기초한 동료의식이 형성되도록 한다. 미국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쿠 클럭스 클랜이 아니면 문화적 다원주의이다.”<sup>64)</sup>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던 미국에서 어떻게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었는가? 종교적 관용과 다문화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성장해온 미국에서 어떻게 반이민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던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칼렌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다원주의를 포기하고 KKK단이 되어버린 것인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는 미국 내

<sup>64)</sup>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종교 인구의 감소를 지목할 것이다. 절대적인 숫자를 논외로 하더라도, 또 다른 부류는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종교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했다고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에 따라, 종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합의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sup>65)</sup> 이러한 방식은 가장 쉬운 답변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좀 더 내밀한 차원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정신을 이뤘던 종교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 접수: 2022년 11월 10일 / 심사: 2022년 12월 1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

<sup>65)</sup>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막스 베버 저,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참고문헌】

- 막스 베버 저,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Akam, Everett Helmut, *Transnational America: Cultural Pluralist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2.
- Alba, Richard and Nancy Foner, *Strangers No More: Immigration and the Challenges of Integration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Balderrama, Francisco E. and Raymond Rodriguez, *Decade of Betrayal: Mexican Repatriation in the 1930s*, Albuquerque, NM: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2006.
- Bodnar, John, *The Transplanted: A History of Immigrants in Urban Ame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Broughton, David and Hans-Martien ten Napel, eds., *Religion and Mass Electoral Behaviour in Europ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 Buchanan, Patrick J., *State of Emergency: The Third World Invasion and Conquest of America*, New York: Thomas Dunne, 2006.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Palgrave Macniillan, 2003.
- Chen, Carolyn, *Getting Saved in America: Taiwanese Immigration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Ebaugh, Helen Rose Fuchs and Janet Saltzman Chafetz, *Religion & the New Immigrants: Continuities and Adaptations in Immigrant Congregation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0.
- Gleason, Philip, *Speaking of Diversity: Language and Ethnicity in Twentieth-Century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Grant, Madison, *The Passing of the Great Race, or the Racial Basis of Europe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8 (1916).
- Greene, Daniel, *The Jewish Origins of Cultural Pluralism: The Menorah Association*

- and American Diversit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 Hamington, Maurice, *The Social Philosophy of Jane Addam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 Herberg Will, *Protestant-Catholic-Jew: An Essay in American Religious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Higham, John, *Send These to Me: Immigrants in Urban America* (Rev.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1975].
- Higham, John,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60-192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8[1955].
- Hing, Bill Ong, *Defining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4.
- Huntington, Samuel,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5.
- Joshi, Khyati Y., *New Roots in America's Sacred Ground: Religion, Race, and Ethnicity in Indian America*,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6.
- Kallen, Horace M.,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8 (1924).
- Kaufmann, Eric P., *The Rise and Fall of Anglo-Americ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Kautzer, Chad and Eduardo Mendieta, *Pragmatism, Nation, and Race: Community in the Age of Empi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 Kivisto, Peter and Thomas Faist, *Beyond a Bord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ntemporary Immigration*, California: Sage, 2009.
- Lawson, Bill and Donald F. Koch, *Pragmatism and the Problem of Ra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 Lee, Erika, *America for Americans: A History of Xenophobia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Basic Books, 2019.
- Luhman, Reid, *Race and Ethnicity in the United States: Our Differences and Our Roots*, Houst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2.
- MacMullan, Terrance, *Habits of Whiteness: A Pragmatist Reconstruc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 Margalit, Avishai and Joseph Raz,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Will Kymlicka, ed.,

-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McKenna, Erin and Scott Pratt, *American Philosophy: From Wounded Knee to the Present*, New York: Bloomsbury, 2015.
- Myrdal, Gunnar, *An American Dilemma: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 Volume I*,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2 [1944].
- Pratt, Scott, *Native Pragmatism: Rethinking the Roots of American Philosoph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 Putnam, Robert D. and David E. Campbell,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Us and Unites U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0.
- Rattansi, Ali, *Multicultur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Sullivan, Shannon, *Revealing Whiteness: The Unconscious Habits of Racial Privile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 Tatalovich, Raymond and Byron W. Daynes, *Moral Controversies in American Politics*, 4th edition, New York: M.E. Sharpe, 2011.
- Taylor, Charles,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Volume 1*,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1835.
- Warren Amy Eva, Richard M. Lerner, and Erin Phelps, eds., *Thriving and Spirituality Among Youth: Research Perspectives and Future Possibilit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11.
- Williams, Raymond Brady, *Religions of Immigrants from India and Pakistan: New Threads in the American Tapes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Yetman, Norman R., *Majority and Minority*, Boston: Allyn and Bacon, 1999.
- 김대중, 「『팔월의 빛』과 『약속의 땅 모나』를 통해 살펴본 인종과 패싱 담론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제45호, 2018, 35-59쪽.
- 김덕호, 「랜돌프 본과 세대갈등」 『미국사연구』 제54집, 2021, 105-139쪽.
- 김정욱, 「잭 존슨(Jack Johnson)과 가변적인 백인의 경계, 1905-1913」 『미국사연구』



- 제48집, 2018, 207~247쪽.
- 김중혁 외 공저,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 수용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5집 4호, 2019, 177~202쪽.
- 김호연, 「미국에서의 생명정치(Bio-Politique), 1890년대-1930년대」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제46집, 2018, 123~153쪽.
- 김호연, 「미국에서의 우생학 실험: 오네이다 공동체, 1848-1880」 『미국사연구』 제49집, 2019, 139~172쪽.
- 김효정 · 조규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제7집 1·2호, 2018, 59~103쪽.
- 박지영, 「대중의 위협인식이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정책 지지에 미친 영향: 문화적 · 안보적 · 경제적 위협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5호, 2018, 217~242쪽.
- Bramadat, Paul, "Religion, Race, and Remembering: Indo-Caribbean Christians in Canad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79, no. 2 (2011), pp. 315-345.
- Brown, Mark S, "Religion and Economic Activity in the South-Asian Popul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3, no. 6 (2000), pp. 1035-1061.
- Cadge, Wendy and Elaine Howard Ecklund, "Immigration and Relig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no. 1 (2007), pp. 359-379.
- Clark, Ken and Stephen Drinkwater, "Immigrant Self-Employment Adjustment: Ethnic Groups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vol. 30, no. 1/2 (2009), pp. 163-175.
- Connor, Phillip, "Religion as Resource: Religion and Immigrant Economic Incorpor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0, no. 5 (2011), pp. 1350-1361.
- Connor, Phillip and Matthias Koenig, "Bridges and Barriers: Religion and Immigrant Occupational Attainment Across Integration Contex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7, no. 1 (2013), pp. 3-38.
- Feen, Richard H., "Church Sanctuary: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Practice" *Defense of the Alien*, Vol. 7 (1984), pp. 132-139.
- Foner, Nancy and Richard Alba, "Immigrant Religion in the US and Western Europe:

- Bridge or Barrier to Incl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2, no. 2 (2008), pp. 360-392.
- Habermas, Jürgen, "Secularism's Crisis of Faith: Notes on Post-Secular Socie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vol. 25 (2008), pp. 16-29.
- Hirschman, Charles, "The Role of Religion in the Origins and Adaptation of Immigran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3 (2004), pp. 1206-1233.
- Kallen, Horace M., "Democracy versus the Melting-Pot: Part II" *The Nation*, vol. 100, no. 2591 (1915).
- Khattab, Nabil, "Ethno-Religious Background as a Determinan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Britain" *Sociology*, vol. 43, no. 2 (2009), pp. 304-322.
- Koenig, Matthias, Mieke Maliepaard, and Ayse Güveli, "Religion and New Immigrants' Labor Market Entry in Western Europe" *Ethnicities*, vol. 16, no. 2 (2016), pp. 213-235.
- Levitt, Peggy, "Religion as a path to civic engagement" *Ethics and Racial Studies*, vol. 31, no. 4 (2008).
- Lindley, Joanne, "Race or Religion? The Impact of Religion on the Employment and Earnings of Britain's Ethnic Communit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28, no. 3 (2002), pp. 427-442.
- McAndrew, Siobhan and David Voas, "Immigrant Generation, Religiosity and Civic Engagement in Britai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7, no. 1 (2014), pp. 99-119.
- Merolla, Jennifer, S. Karthick Ramakrishnan, and Chris Haynes, "'Illegal,' 'Undocumented,' or 'Unauthorized': Equivalency Frames, Issue Frames, and Public Opinion on Immigration"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1, no. 3 (2013), pp. 789-807.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Lane Crothers and Charles Lockhart, eds., *Culture and Politics: A Read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p. 223-234.
- Schwartz, Shalom H. and Sipke Huisman, "Value Priorities and Religiosity in Four Western Relig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8, no. 2 (1995), pp. 88-107.

- Stark, Rodney, "Religion and Conformity: Reaffirming a Sociology of Religion" *Sociological Analysis*, vol. 45, no. 4 (1984), pp. 273-282.
- Smith, Timothy L., "Religion and Ethnicity in Americ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83, no. 5 (1978).
- Thompson, Nora E. and Andrea G. Gurney, "He is Everything': Religion's Role in the Lives of Immigrant Youth"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vol. 100, no. 4 (2003), pp. 75-90.
- Tichenor, Daniel, "The Historical Presidency: Lyndon Johnson's Ambivalent Reform: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6, no. 3 (2016), pp. 691-705.
- Warner, Stephen R., "Religion and New (Post-1965) Immigrants: Some Principles Drawn from Field Research" *American Studies*, vol. 41, no. 2/3 (2000), pp. 267-286.
- Yang, Fenggang and Helen Rose Ebaugh, "Transformations in New Immigrant Religions and Their Global Implic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2 (2001), pp. 269-288.
- Ysseldyk, Renate, Kimberly Matheson, and Hymie Anisman, "Religiosity as Ident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ligion from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4, no. 1 (2010), pp. 60-71.
- The Pew Research Center report*, "The Age Gap in Religion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8.

## The United States's social integration problem as an immigrant country and its religiosity: through the 'melting pot' model and its criticism of Horace Kallen

Kim, Ji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of immigrants, has achieved social integration in the 'age of migration', and argues that the religiosity is closely linked to the immigration policy controversy raised in the 21st century. This paper argues that pluralism, which became the cornerstone of the formation of the U.S. identity and its subsequent remarkable growth, was due to religiosity. To show this argument, it introduces the debate between nativism and classical pragmatism over the rapid increase of immigrants in the early 20th century, along with a brief history of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further examines the problem raised by a pragmatist, Horace Kallen, regarding the way to represent the American society composed of immigrants. Kallen tackles the problem of assimilation revealed through the established metaphor, 'melting pot', and introduces an alternative, 'orchestra'. These metaphors describe an integrated community, but do not capture the experiences of the immigrants entering the immigrant society. Thus, this paper discusses both the religiosity that is not fully contained in these metaphors and the theological experiences of

the immigrant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argues that religiosity as the spirit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onsidered more deeply, and in this context, the so-called 'Trump phenomenon' should also be reviewed as a religious problem, rather than simply a political one.

Keywords: Migration, Immigration Policy, Nativism, Classical Pragmatism, Horace Kallen, Melting Pot, Orchestra

김지훈 (Kim, Jihoon)

---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양정치사상, 근대정치사상, 국제정치사상을 주요 연구 분과로 삼고 있다.